

갱년기 장애 환자를 소양인 형방사백산으로 치료한 치험 1례

김경석* · 이상룡* · 차재덕** · 김은이*** · 김경선*** · 곽창규**** · 김형순*****

Abstract

A case report of climacteric woman improved with Soyangin Hyeongbangsabaeksan

Kim Kyung-Sok* · Lee Sang-Yong* · Cha Jae Deog** · Kim Eun-Yi*** ·
Kim Kyung-Sun*** · Kwak Chang-Kyu**** · Kim Hyoung-Soon*****

*Dep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Dongsuwon Oriental Hospital, Suwon, Kyung-gi Do, Korea.
**Department of Acupuncture & Moxibustion, Dong-soo-won Oriental Medicine Hospital
***Dep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Dong-so Oriental Hospital, Seoul, Korea.
****Dep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hee Univ.
*****Dep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WonKwang Univ.

The climacteric is the period of passage out of the reproductive stage of life and into the nonreproductive phase. The climacteric can be accompanied by wide-ranging, uncomfortable and disruptive symptoms. Symptoms that are related to hormonal changes include abnormal bleeding, facial flushing, and urogenital discomfort.

This patient was 45- year-old woman who had headache, facial flushing, thirst, fatigue, irregular menstruation, urogenital discomfort and had been diagnosed and teated climacteric.

We classified this patient as Soyangin(少陽人) Yin collapsed disease(亡陰證) and prescribed Hyeongbangsabaeksan(荊防瀉白散). We experienced the good effect of Hyeongbangsabaeksan on Soyangin Mangyin-disease . We report the healing process and the result of treatment in this study.

keywords : climacteric (更年期), Soyangin(少陽人), Yin collapsed disease(亡陰證), Hyeongbangsabaeksan (荊防瀉白散)

서 론

가임기에서 생식능력을 상실하는 폐경기 후로 이행되는 10년 내외의 기간을 갱년기(climacteric),

다른 말로 폐경기 전후 이행기(perimenopausal years)라고 한다. 갱년기 증후군은 폐경을 유발하는 에스트로겐 결핍으로 유발되게 되는데, 혈관운동성 증상과 심리적 증상인 안면홍조,

* 동수원한방병원 사상체질학과 **동수원 한방병원 침구과 *** 동서한방병원 사상체질과
**** 경희대학교 사상체질과 ***** 원광대학교 사상체질과
교신자 : 김경석 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157-7 동수원한방병원
전화: (031) 210-0881 , 016-716-3142 FAX) (031) 210-0146 E-mail address: dhgk19@freechal.com

야간발한, 수면장애, 피로감, 우울증, 불안, 집중력 및 기억장애, 그리고 비뇨 생식계 위축에 의한 성교통, 빈뇨, 교원질 감소에 따른 피부탄력 소실, 유방의 처짐, 그리고 심혈관 및 골다공증을 포함한 근골격계 증상을 포함한다. 1)2)3)

이에 저자는 顔面紅潮, 面赤, 上熱, 頭痛, 項強, 面部多汗, 月經不調, 寒熱往來, 小便數 尿澁, 引飲冷水, 煩燥, 胸悶, 易勞, 大便滑利 등의 갱년기 증후군 증상을 주소로 본원에 내원한 환자를 少陽人 脾受寒表寒病의 亡陰病 中身熱 頭痛 泄瀉證으로 보고 荊防瀉白散으로 치료하여 임상증상의 호전을 경험하였기에 이를 보고하는 바이다.

증례

1. 환자 : 최○○ F/45

2. 발병일 : 2003년 5월경

3. 주소 :

顔面紅潮, 面赤, 上熱, 頭痛, 項強, 面部多汗, 月經不調, 寒熱往來, 小便數 尿澁, 引飲冷水, 煩燥, 胸悶, 易勞 大便滑利

4. 과거력

1) 1년 여전 건강 검진시에 혈압이 조금 높다는 말을 들었으나 別無治療.

2) 2년여 전부터 초등학교에서 장시간 서서 칠판에 판서를 하면서 생긴 項強, 後頭痛 등의 증상으로 여러차례 한의원 및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음.

5. 가족력: 특이사항 없음

6. 사회력: 초등학교 선생님이로 활동적인 성격. 학생들 앞에선 항상 자기 감정을 조절해야 하는데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함.

7. 현병력: 만 45세의 다소 마른 체격에 급한 성격의 여환으로 2003년 3월 頭痛, 項強, 惡心, 消化不良 食滯, 顔面紅潮, 心悸 등의 증상으로 본원 외래에 내원하여 少陽人 獨活地黃

湯을 복용한 후에 증상이 많이 호전되었으나 肩項部 근육 경결로 인한 項強, 後頭痛의 증상은 여전하여 이후 꾸준히 외래에서 침치료를 받아오다 2003년 5월경 項強, 頭痛이 다시 심해지면서 顔面紅潮, 面赤, 引飲冷水, 面部多汗, 胸悶, 心煩, 大便滑利의 증상이 발생하였고 다시 7월경에는 易勞, 月經不調 및 小便異常의 증상까지 발생함.

8. 초진소견

全身症狀: 易勞, 口乾 口渴, 多飲冷水, 忌熱

皮膚: 色白 浮軟

頭面部: 頭痛, 項強, 面部多汗, 上熱 面赤

胸部: 胸悶, 心煩

睡眠: 淺眠

大便: 滑利 2-5회/1일

小便: 頻數 1회/1-3시간, 尿澁, 色黃

舌診: 舌淡紅無苔

脈診: 弦緊

腹診: 心下痞

초진시 활력징후

BP 140/80 BT 36.5 PR80 RR 20

9. 체질감별 (table 1)

10. 경과 (table 2)

table 1	
QSCCⅡ	소양인
體形氣像	160cm정도 키에 다소 마른, 골반이 다소 작은 전체적으로 상하 균형잡힌 체형으로 골격이 단단하고 날렵한 인상을 줌.
容貌司氣	예리한 눈매에 다소 급한 성격으로 매사에 일처리가 빨라 능력있다는 말을 많이 들으며, 상황대처에 능숙하며 활동적이며 단정한 느낌.
素症	가벼운 消化障礙와 頭痛, 顔面紅潮, 心悸의 증상을 갖고 있으며 삼계탕을 먹지 못하고 커피를 마시면 心悸 증상이 심해지며 생선회를 좋아함.

날짜	증상변화	처방
2003년 3/5	項强, 偏頭痛, 後頭痛, 惡心, 消化不良, 食滯, 上熱, 心悸	獨活地黃湯 加 石膏 生地黃 1錢 6일투여
3/11	偏頭痛, 惡心, 消化不良, 食滯, 上熱, 心悸 호전됨. 項强, 後頭痛은 여전.	獨活地黃湯 加 石膏 生地黃 1錢 去 山茱萸 2錢 7일 투여
5/27	項强, 顔面紅潮, 頭痛, 面赤, 面部多汗, 後頭痛甚, 心悸, 淺眠, 引飲冷水, 大便微滑 2-3회/1일	荊防瀉白散 10일 투여
5/31	顔面紅潮, 頭痛, 面赤, 引飲冷水 등의 증상 호전. 大便은 보통양상으로 1회/1일	荊防瀉白散 계속 투여
8/9	寒熱往來, 顔面紅潮, 頭痛, 面赤, 面部多汗, 引飲冷水, 小便數, 尿澁, 月經不調로 月經量 현저히 줄고 주기를 건너뛴. 대변 묽어지면서 시원치 않음. 2-5회/1일	보협액기스제 加味逍遙散 5일투여
8/13	여타증상 별무호전, 小便數, 尿澁 더 심해짐.	荊防瀉白散 10일투여
8/21	顔面紅潮, 寒熱往來, 頭痛, 面赤, 面部多汗, 引飲冷水, 小便數, 尿澁 호전.	荊防瀉白散 계속투여

2003년 3월 5일: 초진 내원일로 項强, 偏頭痛, 後頭痛, 惡心, 消化不良, 食滯, 顔面紅潮, 心悸를 주소로 방문. 혈압은 140/80으로 다소 높은 편이었고 素症은 面白, 手足溫, 顔面部微汗出, 大便은 보통 성상으로 매일 보는데 간혹 便秘가 생긴다 하고 小便은 別無異常하고 睡眠상태는 淺眠. QSCCII와 素症을 종합해 少陽人으로 판정하고, 食滯, 消化不良을 主訴로 顔面紅潮, 頭痛 등의 頭面部의 熱症을 호소하여 少陽人 食滯痞滿證에 熱症을 겸한 것으로 판단하고 獨活地黃湯¹⁾ 加 石膏 生地黃 1錢 6일간 투여함.

3월 11일 : 偏頭痛, 惡心, 消化不良, 食滯,

上熱, 心悸 호전됨. 項强 後頭痛은 여전한 상태. 項强, 後頭痛은 환자가 한 손으로는 책을 든 채 다른 한손으로 칠판에 판서를 많이 하기 때문에 肩胛部와 項部에 근육이 많이 경결되기 때문으로 판단됨. 이후 1주일에 2-3번씩 내원하게 하여 지속적인 침 치료함.

5월 27일 : BP 150/100. 項强 顔面紅潮 頭痛 面部多汗 後頭痛甚 心悸 淺眠 引飲冷水 大便微滑 2-3회/1일. 최근 심한 스트레스로 다시 顔面紅潮, 頭痛, 面部多汗 등의 頭面部 熱症이 심해지고, 찬 것만 먹게 된다고 하고 대변이 다소 묽어지면서 시원하지 않다고 함. 汗出의 양상은 頭面部에 국한되어 手足掌心을 포함한 全身의 汗出은 다소 줄어들었다 함. 이에 少陽人 亡陰病 中 身熱 頭痛 泄瀉證으로 판단하고 少陽人 頭痛 膀胱榮燥證을 치료하는 荊防瀉白散²⁾ 10일간 투여함.

5월 31일 : BP 130/80, 顔面紅潮, 頭痛, 引飲冷水 등 증상이 호전되고 大便은 보통양상으로 1일 1회보는데 시원하다고 함.

투약 후 잠 잘오고 전반적인 頭面部 熱症이 호전되면서 頭面部의 汗出은 줄어드는 대신 손바닥이 축축해지고 가슴답답한 증상이 많이 좋아졌다고 함. 이후 服藥과 함께 肩胛部, 項部의 통증치료를 위해 1주일에 2-3회씩 내원하여 침치료³⁾ 받음.

8월 9일 : 寒熱往來, 顔面紅潮, 易勞, 頭痛, 面赤, 面部多汗, 引飲冷水의 증상이 다시 발생하여 이전보다 심한 양상이었고, 새롭게 小便異常과 月經不調를 호소함.

대변은 묽어지면서 시원치 않고 1일 2-5회씩 보는 양상. 지난 5월 복약 후에 증상이 호전되어 別無症狀으로 지내오다 7월부터 月經量이 현저히 줄면서 생리주기가 한 달 이상으로 길어지는 변화로 인해 몹시 당황스러웠다

1). 「東醫壽世保元」 獨活地黃湯: 熟地黃 4錢 山茱萸 2錢 茯苓 澤瀉 各1錢半 牡丹皮 獨活 防風 各1錢. 治食滯痞滿者 宜用
 2). 「東醫壽世保元」 荊防瀉白散: 生地黃 3錢 茯苓 澤瀉 各 2錢 知母 石膏 羌活 獨活 荊芥 防風 各1錢. 治頭痛 膀胱榮躁者 宜用
 3) 승모근, 사각근, 견갑근 MPS 치료. 少府, 解谿, 大都

고 하고, 小便까지 자주보게 되고 시원하지 않은 증상까지 동반되자 산부인과에 내원함. 진찰결과 갱년기 증후군으로 진단 받음. 호르몬제를 20여일 복용하였으나 별무 효과로 본격적인 한방치료 위해 다시 본원 외래로 내원함. 이전보다 심한 頭面部 熱感과 汗出 그리고 피로감을 호소하였고 이전에는 面白하였으나 이번에는 面色이 붉어져있고 寒熱往來의 증상까지 더해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낄 정도의 상황. 手足掌心 無汗.

보협역기스 加味逍遙散 5일 처방.

8월 13일 : 加味逍遙散 복용후에도 증상 별무 변화하고 소변은 더욱 보기 힘들어졌다고 함.

〈少陽人 脾受寒表寒病論〉의 亡陰病 中 身熱 頭痛 泄瀉證으로 판단. 荊防瀉白散 10일 처방.

8월 21일 : 호르몬제나 加味逍遙散을 복용할 때 증상의 변화가 거의 없었으나 荊防瀉白散 복용후에 寒熱往來, 顏面紅潮, 易勞, 頭痛, 面赤, 面部多汗, 引飲冷水 大便滑利의 증상 호전되어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다고 하고, 소변횟수는 줄고 量이 늘면서 보기 편해졌다고 함. 그러나 월경량 및 생리주기의 변화는 미약함.

고 찰

폐경이란 난소기능의 저하로 1년간 무월경 상태가 유지될 때 마지막 월경의 시점을 일컫는다. 폐경이 된 후로부터는 postmenopause라 한다. 폐경이 되기 전에는 명백한 생리적 변화가 있게 되는데 폐경되기 전부터 마지막 월경이 있고 1년 후까지의 약 2~8년의 기간을 폐경이행기(menopausal transition)라 한다. 연령으로는 대략 45세~65세에 해당되는데 이때를 임상적으로 갱년기(climacteric) 또는 주폐경기(perimenopause)라고 한다.¹⁾²⁾

배란, 임신, 월경등의 여성의 생리적 특징은 월경조절중추인 시상하부-뇌하수체-난소축의 호르몬의 상관관계에 의지한다. 즉 성숙난포가 될 때까지의 과정에서 난포가 분비하는 에스트로젠(estrogen)과 배란후 황체가 분비하는 프로제스테론(progesteron)의 주기적 작용을 말한다.

폐경이 가까와 질수록 난소의 노화가 진행되면서 난소에서 생산하는 에스트로젠과 인히빈(inhibin)이 감소하고 혈중 난포자극 호르몬(follic stimulating hormone, FSH)농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월경주기가 불규칙해지고, 異常 子宮出血을 보이는 등의 변화를 겪다가 결국 영구무배란에 따른 영구무월경 즉 폐경에 이른다.²⁾

최훈 등³⁾의 보고에 따르면 자연폐경인 여성 797명중 89%의 여성이 폐경기 증상이 있었다고 답했는데 폐경기 증상으로는 안면홍조가 61%로 가장 많았으며, 이외에 건망증, 가슴 두근거림, 피부증상, 근육통, 관절통, 발한, 뇨로증상, 우울증, 불면, 성교통의 순이었다.

갱년기 장애의 진단은 임상증세가 가장 중요하다. 위에 열거한 안면홍조, 야간발한, 비뇨생식기계의 위축 등의 전형적 증상만으로 진단을 내릴수 있다. 다만 증상이 확실하지 않아 진단이 어려울 경우에 난포자극 호르몬, 황체 호르몬, 에스트로젠 등의 호르몬 검사를 시행한다.²⁾

치료에 있어서는 에스트로젠과 프로제스테론 제제를 이용한 호르몬 대체 요법이 보편적이다. 호르몬 대체요법은 40세 이전의 조기 폐경환자와 폐경기 증상이 있는 폐경기 여성, 폐경기 증상이 없는 심혈관 질환과 골다공증의 고위험군에 있는 45세 미만의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데 치료목표는 혈관운동 개선 및 골다공증 예방, 폐경후 삶의 질 향상에 있다..²⁾

證治醫學으로 본 갱년기 장애는 다음과

같다. 『素問』 〈上古天真論〉 편에 “七七 任脈虛 太衝脈衰少 天癸竭 地道不通 故壞而無子也.”라고 한 것은 여자 49세 前後, 즉 폐경 전후 여성의 생리적 변화를 설명한 것이다. 갱년기 장애의 일반적 증상은 肝氣鬱逆과 유사한데, 이는 폐경기가 되어 衝任脈이 衰退하면 腎虛火動하여 肝氣를 衝動하기 때문이다. 肝木이 虛損해져서 肝氣가 橫逆하면 脾胃, 肺, 心, 腎 등의 다른 臟器를 손상시키게 된다. 이를 변증유형별로 구분하면 肝經自病, 肝乘脾胃, 肝侮肺金, 肝犯心火, 肝傷腎水로 나눌 수 있다. 治療는 疎肝理氣, 하고 解鬱散結을 주로 하여 理氣平肝散, 丹梔逍遙散, 甘麥大棗湯 등을 응용한다. 4)

상기 환자는 2003년 3월 初診時 실시한 QSCCⅡ와 素症, 그리고 3월 내원 당시에 주소 증인 項強, 偏頭痛, 後頭痛, 惡心, 消化不良, 食滯, 顏面紅潮, 心悸등의 病證을 종합해 본 결과 당시 少陽人의 食滯痞滿證에 狹熱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獨活地黃湯 加 石膏 生地黃으로 임상증상의 호전을 경험한 바 있었다.

그후 7월부터 환자에게 나타난 小便 및 月經異常을 포함한 갱년기 증상들인 寒熱往來, 顏面紅潮, 頭痛, 面赤, 面部多汗, 引飲冷水, 小便數, 尿澁, 月經不調, 大便滑利의 증상을 衝任脈虛損과 肝氣鬱結, 肝陽上亢으로 인한 本虛標實證으로 보고 당시 환자의 개인적인 이유 등으로 일단 보험엑기스제인 加味逍遙散⁴⁾을 처방하였다.

加味逍遙散은 更年期 症候群으로 인한 月經不順, 寒熱往來, 午後盜汗, 上氣, 顏面赤熱, 眩暈, 鼻出血이 있을때 쓰는데 氣血兩虛, 肝鬱火化한 것을 疏肝解鬱, 健脾補血, 調經, 清熱涼血하는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있다. 5)

하지만 환자는 내원 전에 산부인과에서 처방한 호르몬제와 마찬가지로 加味逍遙散 복용

후에도 증상은 호전되지 않았다.

환자는 3월에 내원하기 수 개월 전부터 이미 顏面紅潮, 頭痛, 頭面部汗出, 面赤 등의 頭面部的 熱症을 겪었다고 했는데, 이미 초기 갱년기증상이 시작되었다고 판단된다.

3월,5월에 각각 소양인 獨活地黃湯과 荊防瀉白散을 복용하고서 上記 증상이 호전되었는데 다시 심한스트레스를 겪으면서 7월달부터는 小便異常과 月經不調까지 초래되는 상황이었다.

이때 환자의 大便양상은 便秘가 아닌 滑한 양상으로 一日 數次의 상태였다.

李濟馬는 『東醫壽世保元』 〈少陽人 脾受寒表寒病論〉에서 “少陽人 身熱頭痛泄瀉者 當用 猪苓車前子湯 荊防瀉白散”이라고 밝히고 少陽人 亡陰病 中 身熱 頭痛 泄瀉에 荊防瀉白散을 사용한다고 했다.

한편 荊防瀉白散의 사용과 관련해서 『東醫壽世保元』에서는 “凡 少陽人 表病 有頭痛則自是表病明白 易見之初證也 若復引飲 小便赤澁則 可畏也 泄瀉 揚手擲足則 大畏也 ... 少陽人 身熱頭痛 揚手擲足 引飲者 此 險證也 雖泄瀉 必用石膏 無論泄瀉有無 當用 荊防瀉白散 加 黃連 瓜藹 各一錢 或 地黃白虎湯 ... 凡 少陽人 有身熱頭痛則 已非輕證而 兼有泄瀉則 危險證也 必用 荊防瀉白散 日二三服 又連日服 身熱頭痛 清淨然後 可免危險”이라 밝히고 있다. 6)

환자의 大便이 비록 하루 십여번의 심각한 滑便이나 전형적인 泄瀉의 양상은 아니었지만, 少陽人의 身熱, 頭痛은 表病의 증거로서 泄瀉 有無를 막론하고 荊防瀉白散을 쓸 것을 강조하였다.

또 〈少陽人 胃受熱裏熱病證論〉에서“少陽人 胃受熱則 大便燥也 脾受寒則 泄瀉也 故 亡陰證 泄瀉 二三日而 大便秘 一晝夜則 清陰

4) 『東醫寶鑑』 加味逍遙散 :牧丹皮 白朮 1錢半 當歸 白芍藥 桃仁 貝母 1錢 山梔 黃芩 8分 桔梗 7分 青皮 5分 甘草 3分.

將亡而 危境也” “少陽人 表裏病結解 必觀於大便而...一晝夜間 三四五次 小小滑利者 將澁之候也 非好便也 宜預防 ”라고 했듯이 , 상기 환자의 大便 양상 역시 하루 2-5회에 걸쳐 滑리한 양상으로 陰氣가 壯亡하는 위험한 상황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했다.

이에 저자는 寒熱往來, 顔面紅潮, 頭痛, 面赤, 面部多汗, 引飲冷水, 小便數, 尿澁, 月經不調, 大便滑利의 증상을 가진 갱년기 환자를 「東醫壽世保元」 〈少陽人 脾受寒表寒病論〉의 亡陰病중 身熱 頭痛 泄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荊防瀉白散을 투여해서 임상증상의 호전을 경험하였기에 이를 보고하는 바이다.

참 고 문 헌

1. 조수현. 폐경이행기(Menopausal Transition). 제9차 대한폐경학회 학술대회지 .1998 :18-25
2. 대한폐경학회편찬위원회. 폐경기 여성의 관리 2판. 서울. 군자출판사 2001. 1-19
3. 최훈, 이홍균, 박형무. 한국폐경여성의 폐경에 대한 인식도 조사. 대한폐경학회지. 2003: 9(1) 36-43.
4. 송병기. 韓方婦人科學. 초판. 서울. 행림출판 .1998: 193-196
5. 신재용. 方藥合編解說. 傳統醫學研究所. 5판 .서울 .성보사. 1998 : 194. 236
6. 송일병 외. 사상의학.1판. 서울. 집문당. 1997: 465-479